

보목동 정포제 연구

김 동 섭*

차 례

1. 서론
2. 조사지 개관
3. 제의준비
4. 제청입제 및 제의봉행
5. 보목동 마을제의 특성
6. 결론

1. 서론

보목동에서 정월에 행하고 있는 마을제중 남성에 의해 유교식으로 거행하는 것을 '정포제'라고 부른다. 여성의 무속식 마을제를 '당굿'이라 부르고 있어 구분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유교식 마을제에 대한 연구는 현용준¹⁾, 진성기²⁾, 이완종³⁾, 김동섭⁴⁾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살핀 바 있다. 특히 김동섭은 연차계획의 의거 <표1>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고고민속과장

1) 현용준, 「제주도 유식 마을제」, 『석주선교수회갑기념논총』(민속학논총), 동간행위원회, 1971.

2) 秦聖麒, 『醮祭堂과 部落祭』, 『濟州島巫俗論考』, 濟州民俗研究所, 1993.

3) 李完鐘, 「濟州島 마을제에 대한 고찰」, 제주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5.

4) 김동섭, 「서귀포법환동마을제연구」, 『영주어문』(7), 영주어문학회, 2004. 59~86쪽.

과 같이 포제(醮祭)에 대한 참여관찰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표1> 포제조사표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계
계	4	4	9	5	22
1997			조천(신촌리)		1
1998	삼양				1
1999			애월(하가리, 유수암리)		2
2000	외도(우렁이)	호근		안덕(사계리)	3
2001			애월(애월리), 한경(용수리)	표선(성읍1리)	3
2002			구좌(하도리), 한림(명월리)		2
2003			우도(천진리), 추자(영흥리)	남원(하례리)	3
2004		법환		성산(온평리), 대정(무릉리)	3
2005	도평, 해안				2
2006		서홍, 보목			2

본고에서는 서귀포 동부지역 어촌마을에 속하는 보목동의 유교식 마을제를 참관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유교식 마을제에 대한 한 사례를 살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일정별 추진과정을 자세히 살피고 다른 지역의 마을제와 비교·분석함으로써 보목동 정포제가 갖는 특성을 밝힘으로써 우리나라 전통 마을의 이해 및 신앙환경의 저변을 이해하는 데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

현지 참관조사는 2006년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보목동 문화의 집인 마을회관 및 포제동산에서 행해졌다. 이 기간동안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마을원로 이용식님, 마을회장 강진국님, 초현관 현원후, 아현관 양문웅, 종현관 한경학님, 전사관 강석민, 집례 이성익, 대축 고윤보님 및 한동실, 이성훈, 강만익, 현승주, 양태일, 현운백, 한승택 제관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2. 조사지 개관

강진국(1944년생)에 의하면 450여 년 전에 조씨, 백씨 성을 가진 분들이 ‘고막고짜’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면서 보목동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지금 보목동에 살고 있지 않으며 지역을 ‘한 무덤골’로 옮겨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한씨, 강씨, 현씨 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한다.

보목리 마을은 동경 126°37', 북위 33°14', 서귀포시 중심에서 동남쪽으로 4km, 걸어서 30분 거리에 자리잡고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1981년 서귀포시제가 실시되면서 서귀동 일부와 동홍동, 토평동의 일부를 합쳐 서귀포시 송산동에 포함되었다. 동으로는 지금 제주방송국 서귀포중계소가 있는 <세경물>을 경계로 하효동과 나누이며, 북쪽으로는 신희동의 <소학남모루>와 토평동의 <모시물>, 서쪽으로는 <빌레통> 분지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마을의 중심부를 남쪽으로 내리는 <정술내>를 중심으로 이 마을은 동서로 나뉘어져 취락이 형성되고 있다. 동동네는 지형이 낮고 해풍의 영향으로 수목들이 잘 자라지 않으므로 어업에 생활 의존도가 높고, 서동네는 지대가 높고 토질이 비옥하며 숲이 우거져 있어 농업에 생활 의존도가 높다. 보목리의 기후는 매우 온화하여 겨울에도 눈이 오는 날이 거의 없으므로 “눈이 오면 개가 짖는다”는 말이 전해 올만큼 연평균온도가 15.7℃의 기온을 이루면서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하여 최고기온은 26.1℃로 비교적 식물이 자라거나 사람이 생활하기에 최적의 기온을 갖고 있다.

이 지역은 한라산의 정남으로 펼쳐 있어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지형을 이루면서 완만하게 내려뺨은 평원은 해안선을 따라 낮은 사면을 이루고 있어 비교적 광대한 조면암질이 잘 발달한 농암갈색의 화산회토로 되어 있어 배수가 잘 되고 토심이 그리 깊지 않으며 비옥하여 일찍이 보리, 조, 콩, 고구마, 유채 등을 재배해 오다가 1950년대 이후부터는 감귤재배의 붐을 이루면서 최근에 와서는 바나나, 파인애플, 화훼 재배의 적정지

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바다와 인접해 있는 입지적 조건을 이용하여 어류 양식장도 마을의 동서 두 군데에 조성되어 있다.

그 후 1715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270년 전 절옴 서쪽과 정술내에서 시작해 마을이 형성되어 인구가 증가하고 타지방 주민들이 이곳으로 이주하여 정착함에 따라 인구가 점차 증가하게 되자 정술내의 하류 서쪽으로도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는데 그 곳을 당시 셋가름이라 불리던 것이 이동네 지명유래가 되어 지금도 그곳을 셋가름이라고 부르고 있다.

3. 제의준비

1) 포제상회

보통 선달 20일 경에 마을회관에서 개최하였다고 한다. 점심때가 되기 전에 소집하여 제관 선정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토의한 후 제관을 선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보목동의 포제일은 돼지고기를 부정한 음식으로 관념하는 마을 할망당의 제일(祭日)이 정월 13일로 해마다 치러지고 있는 관계로 그보다 늦은 정일(丁日)을 제일(祭日)로 잡는다. 올 해에도 입춘(立春)이 지난 첫 달의 정일인 2월 17일이 중정일(中丁日)로, 이 날을 제일(祭日)로 선정하게 된 것이다.

(1) 제비(祭費)

이용식(1923년생)에 의하면 예전에는 포제상회[醮祭鄉會]에서 제미(祭米)로 쌀 1되가 결정되면 마을일을 돌봐주던 분이 있어 집집마다 받으러 다녔다고 한다. 그 제미를 받아 경비에 활용하였으며, 특히 제물(祭物)로 이용하기도 하고 그것을 다른 물자와 교환하거나 팔아서 다른 것을 사서

활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때만 해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더불어 살았다고 한다. 조와 보리를 자급자족하기 위해 농사하는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산뒤'를 농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끼니 걱정으로 사는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보다 잘 사는 사람도 있어서 1되 정도로 제미(祭米)가 결정되더라도 보리쌀이 아닌 산뒤 쌀로 내는 사람, 1되 이상을 내는 사람 등이 있었다고 한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돈으로 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호당(戶當) 1만원정도이지만 예전에는 5,000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2) 제관선정

포제상회에서 제관으로 선정되면 초헌관은 물론 각 제관들은 마을민의 대표로서 자긍심을 갖고 마을민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생활에 임하여야 한다. 제의 진행에 경험이 많이 요구되는 집례, 대축, 알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제관에 대해서는 연령에 구애받지 않았으며, 초헌관 등은 일정 연령 이상의 자로 선정하였다고 한다.

마을민을 대표하여 제의 봉행의 책임을 맡은 초헌관은 제청을 찾은 마을민 모두에게서 인사를 받음은 물론 제청내에서의 생활에서 전 제관을 감독하였다. 이처럼 초헌관으로 선정되면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여 포제상회가 끝날 점심 무렵이 되면 술이나 국수 등의 음식으로 포제상회에 참가한 마을민들에게 대접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특히 신미년(辛未年)인 1991년에는 16명의 제관을 선정⁵⁾하여 제의에 임하였다고 한다.

1992년의 경우 총 7명만 제관으로 선정하여 봉행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찬자, 찬인의 직책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 집사(執事)로 기록되어 있

5) 초헌관 양수명, 아헌관 한웅섭, 종헌관 고영선, 전사관 현석익, 집례 양상표, 대축 홍문호, 찬자 한성복, 찬인 고명관, 알자 현희삼, 봉향 한기우, 봉로 강승보, 전작 김창립, 헌작 한대군, 사준 현진석, 장성령 한재필, 반감 한종원 등 이상 16명을 제관으로 선정하고 대축 홍문호대를 제청으로 선정하여 입제 정성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다. 1969년에 아현관 한공섭 씨 및 헌작 강세연 씨 가정사정으로 발괄하였으며, 정월 15일 정축일로 택일하였으나 정자유 강은석 모친 사망으로 연기하여 시행하였다고 한다.

<표2> 제관명단

구분	06	05	04	03	02	01	00	99	98	97
제관수	13	13	13	13	13	14	12	12	10	11
초헌관	현원후	한석진	강정근	이시준	강춘구	양원종	강대인	강민재	한용섭	강창현
아현관	양문용	현확송	양천석	양상국	현원후	한석진	이시용	이계용	강춘구	현봉양
종헌관	한경학	강진국	한기윤	한상문	허상윤	홍경순	한태수	양민용	이민식	한평섭
전사관	강석민	이성문	한성보	한단원	양상철	한관원	양광홍	한재환	이상엽	강태수
집례	이성익	강희성	강윤조	강진국	양승익	강윤조	강윤조	한만우	강윤조	한봉옥
대축	고윤보	한인사	고영효	한군철	고영효	고영효	한윤태	강진국	이성익	강희d
찬자	한동실	양창원	김세보	김창원	이명규	이성문	김창원	한관원	한재환	한성보
찬인	이성훈	한동실	양창구	한인사	한동현	한윤태	강희성	한명섭	강정운	한근호
알자	강만익	강대홍	한석필	양창환	이일효	한경호	김세보	김세보	한성훈	한만우
봉향	현운백	강인혁	이장혁	이장혁	이상엽	한석필	백운주	한석필	양○현	이권식
봉로	양태일	김영남	김영남			한성유	한창식			
전작	현승주	양취우	한석용	한영섭	강광언	강대홍	현성종	강혁진		한재남
헌작	한승택	현운백	한영섭	김영남	강영영	한영섭		이광해		
사준				한창욱	이장혁	한석범				

<표2-1> 제관명단

연도	96	95	94	93	92	91	90	89	88	87	86
제일	1.14	1.26	1.9	1.24	1.15	1.12	1.20	1.11	2.6	1.22	1.14
제관수	13	11	11	12	7	16	15	15	11	14	14
초헌관	한재유	현종구	이춘옥	한의범	현종구	양수명	이용식	한홍섭	한정현	한홍섭	홍하767
아헌관	현권일	고운문	한윤보	강민제	고운문	한응섭	현종구	한의범	양명세	이용식	양성화64
종헌관	강대인	한춘택	강봉록	한태원	허한영	고영선	한재성	한민섭	강봉구	강민제	한우명80
전사관	이계용	한병기	한규운	양원종		현석익	한평수	한근홍		현봉양	고운문57
집례	양상구	강석유	한창세	한상숙	이용식	양상구	양상구	양의선	이민식	강창현	이계안53
대축	양승익	강윤조	한봉옥	강상조	이성익	홍문호	강윤조	강윤조	양승익	허상관	한석진51
찬자	고영변	양경주	한성관	양상철	강명옥	한성복	고두옥	이계용	한평섭	한창근	양천복48
찬인	한길룡	이춘성	현승화	한준중	양지현	고명관	한재휴	강두칠	한용현	한대현	양성우47
알자	한병언	한천수		한근호		현희삼	양경무	한병기	한기수	양문용	한순옥44
봉향	한일주	고대식	양성열	현길찬		한기우	강희성	한병언	한운철	한수섭	한경화42
봉로	강문수		한근전	한경호		강승보	종창원	현길수	한승필	고두옥	
전작	강봉후	강정운		한석필		김창림	홍경찬	강홍하	양평윤	양상근	정경보38
헌작	한성유		양창언			한대군	한석지	이일남		이명규	양우찬28
사준						현진석	강성현	양재호		이상훈	한경호27
장성령						한재필	강봉후	양창구			한우남27
반감						한종완					
취반											
도색											
제청	노인 회관	강진우	양원종	한상숙	미상	홍문호	이용식	양경호	한정현	허상관	한석진
예산	1,729,000	1,510,000	1,504,000	1,045,000	418,800	828,300	647,200	591,700	279,200	353,700	363,000

<표2-2> 제관명단

연도	85	84	83	82	81	80	72	71	70	69	68
제일	1.18	1.12	1.28	26	1.24	19	미상	1.16	1.11	1.25	1.19
채관수	15	14	15	14	16	15	9	13	12	15	16
초현관	한공섭70	현종권69	한태주67	한무섭	한공섭	강상운	현인생	강상운	이재륜	한운범	한지범
이현관	이춘옥62	한홍섭64	강태현62	강봉영	이기룡	한공섭	한공섭	한인춘	한무섭	양이종	강태호
중현관	현하규61	이용식61	양대중61	한정현	한영섭	홍하규	한태주	양수만	한태준	강정구	김영용
진사관	현종구700	현종구70	강상옥56	현종구	이춘옥	한홍섭	고성봉	한정섭	한영섭	양성백	이홍식
집계	한창세62	강창현54	현하규59	양의신	이용식	현하규	홍하규	현하규	양성만	이용식	장자유
대축	한봉옥48	허상윤48	이민식46	한태원	강창현	이계원	이춘옥	한재성	고운문	한태원	한창세
찬자	강두평47	이경무48	한춘택51	양부조	한춘부	양상중	한춘부	강석유	한승현	한재유	현승은
찬인	한인사45	한준돌46	양성택46	한태완	양상중	강용구	한태완	한기배	이성식	양상진	강원형
알자	양승길43	한기운42	양상익46	허상보	한봉옥	양상구	강일수	이민식	양상구	이계원	강보우
봉향	양형익42	한행남40	현희삼39	강경삼	한평섭	이상중		한동준	양인홍	양상연	한연주
봉로	고영만55	한찬수40	홍문관36	한재성	양창언	안승익				한승옥	양상의
전작	강희성33	고명관37	양기석35	양상학	강철수	강유조		한찬준	양상수	한기운	양민웅
현작	김창룡28	한재우30	이성익34	한근철	한기수	현대숙				강재연	강석준
시준	한홍유28		고영만33	김창완	강홍하	고운보		현희삼	김성출	이근석	이원삼
장성명	한대군27	한경남27	고영효29		허상조	한경사		강태철		현봉훈	한찬준
반감					양용석						이성식
취반											
도색											
제정	한공섭	허상윤	양태중	한정현	한공섭	강상운	미상	강상운	이재륜	이홍식	한지범
예산	441,840	401,000	450,000	686,000	400,000	330,000	미상	32,000	30,000	25,000	22,000

2) 제청의 선정

한경학(1944년생, 남)에 의하면, 15년 전까지만 해도 초현관(初獻官)택이 나 넓고 깨끗한 집을 제청으로 선정하여 이용하였다6)고 한다. 그러나 노인회관이 넓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편리하여 1996년부터 노인회관(老人會館)을 이용하게 되었으며, 4년 전 마을회관이 만들어지면서 오늘날처럼 마을회관을 제청으로 이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6) 1993년에는 한상숙택, 1994년에는 양원종택, 1995년에는 강진우택을 제청으로 선정하여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3> 제청 일람표

구분	06	05	04	03	02	01	00	99	98	97
제관수	13	13	13	13	13	14	12	12	10	11
초헌관	현원후	한석진	강정근	이시준	강춘구	양원중	강대연	강민재	한용섭	강창현
제청	마을 회관	마을 회관	마을 회관	마을 회관	강광연 댁	노인 회관	노인 회관	노인 회관	노인 회관	노인 회관

4. 제청입제 및 제의봉행

오늘날 보목동(甫木洞) 정포제(正醮祭)는 입제일로부터 제의 봉행일까지 전부 4일동안 제청에 입제하여 정성과 금기를 지키면서 제의를 준비하고 마지막날 자시(子時)에 제의 봉행을 통해 마을민의 안녕을 기원하고 있었다.

1) 첫날

11경이 되면 제청(祭廳)인 마을회관으로 제관들이 한복에 두루마기를 갖추어 입고 모여들면서 입제를 마치게 된다. 이 때 입제 기간내 사용할 이부자리와 배개도 함께 갖고 오게 된다. 이 때부터 제의가 끝날 때까지 제청 생활이 시작되면서 제관들은 부정한 것과의 단절을 위해 합숙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1) 금줄 설치

제청인 마을회관 입구에 금줄을 설치한다. 밀감을 많이 재배하는 지역이라서 그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금줄 사이에 감귤나무의 싹(잎)을 꽂아 둔다. 그리고 제청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감귤나무의 싹을 삶은 물을 양푼에 담아 함께 두는 데 방액(防厄)을 위한 방편이라고 한다. 출입하는

사람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라고 한다. 양푼의 물 위에는 향가지 몇 개도 함께 넣어 둔다.

(2) 상견례

알자 이하 봉향, 봉로, 전작, 헌작의 직분을 맡은 분들은 청년회에서 추천하여 제관으로 선정된 분들로 이번에 처음으로 제청에 입제하여 마을민을 대표하여 보목동 정포제를 거행하는 분들이다. 이들이 우선 헌관에게 인사드리는 순서를 갖는다.

(3) 집사방(執事榜) 작성

집사방(執事榜)은 입제 후 제관 대축(大祝)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로, 입제 당일 작성해야 하는 일이었다. 우선 상견례를 마친 후 제청인 마을회관의 제일 큰 방에 헌관(獻官) 등 제관이 입실하고 책상과 한지, 먹(墨)을 마을회장이 준비해 온다. 준비해오는 봉투 안에는 전년도의 기록은 물론 오랫동안 보목동 정포제를 봉행하면서 기록한 제관명단인 정포제 기록부, 회사금과 제비의 집행내역을 기록한 금전출납 등을 기록한 것을 책으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들이었다. 기록부는 가로 28.5cm, 세로 24cm 크기의 한지로 만들어 표지를 붙인 것으로 먹으로 작성한 것이며, 금전출납부는 가로 19cm, 세로 26.5cm의 공책에 볼펜으로 작성한 것이다.

<표4> 병술년(2006) 보목동 정포제 집사방

구분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	典祀官	集禮	大祝	贊者	獻爵
성명	현원후	양문웅	한경학	강석민	이성익	고윤보	한동실	한승택
나이	71	64	62	60	57	56	46	35
출생년도	1934	1941	1943	1945	1948	1949	1969	1970

구분	贊人	調者	奉香	奉爐	奠爵
성명	이성훈	강만익	현승주	양태일	현운백
나이	45	39	36	35	36
출생년도	1960	1966	1969	1970	1969

올해 집사방(執事榜)을 작성한 대축(大祝) 고윤보(1949년 생)에 의하면 가로 63cm, 세로 55cm 크기의 한지(韓紙)에 먹으로 작성했다고 한다. 집사방을 작성할 때는 마을회장은 물론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전사관 등의 제관들이 참석한다고 한다.

(4) 포제동산 청소

입제 첫날 오후 1시경 찬자(贊者) 이하 제관들이 중심이 되어 포제동산 청소를 시행한다. 전년도 포제(酬祭) 봉행(奉行) 이후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멘트를 하지 않은 포제동산의 담 밖으로는 풀로 가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 안쪽의 상황도 그리 깨끗한 편이 아니었다. 제관들은 비자루는 물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하여 제단 내와 주변을 청소하였다. 담 밖의 통로는 제의 봉행 전 알자와 초헌관이 제단을 살펴야 하는 통로였으므로 호미(낫)를 이용하여 풀을 베는 등의 일도 함께 이루어졌다. 또한 제의시 망료를 하기 위한 곳은 주변의 마른 풀들을 제거하여 화재발생에 대비하기도 하였다.

제단(祭壇) 내부의 청소는 수돗물로 깨끗하게 물청소를 함으로써 마무리하였다. 또한 칠흙 같은 어둠을 밝혀야 했으므로 리드 선을 이용하여 전선(電線)을 확보하고 평소 비·바람으로 훼손된 전기 등도 교환하였다. 또한 주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므로 주인을 찾아 개소리가 제의 봉행 중 나지 않도록 이동시키기 위해 사전(事前)에 연락할 것도 잊지 않았다.

(5) 예행연습

찬자(贊者) 이하 제관들이 포제동산 청소를 하고 돌아와서 약간을 쉰 오후 3시경부터 제청 3층에 마련된 다용도실에서 예행연습이 이루어졌다. 처음 제관으로 입제한 제관들의 임무부터 제단에서의 위치, 제의 봉행 중의 역할 등에 대해 예행연습을 통해 익힐 수 있도록 첫날의 예행연습은 2차례 시행되었다. 오랫동안 포제에 참관한 원로 이용식, 마을회장 강진국의 자문과 의견을 들으면서 제관들은 조금씩 제의 봉행에 익숙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처음의 예행연습은 중간중간 서툰 점을 보완해 가면서 진행해 감으로써 40분정도가 소요되었지만 두 번째는 그 보다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이후 총 연습까지 9차례 예행연습을 통해 익숙할 수 있도록 반복하고 있었다.

이성익(1948년생)에 의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흘기문은 가로 6.5cm, 세로 25.5cm의 것으로 2줄씩 종서로 작성한 흘기문을 복사한 것을 붙여 만든 것으로 각각의 장은 접어서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게 만든 것이라고 한다.

(6) 현관집 선물

현관으로 참례하고 있는 집안의 부인들이 제물로 ‘정기’(빙떡을 가리킨다.)와 옥돔 등을 준비해 와서 제청에 올리므로 제관은 물론 제청을 찾는 사람들에게 대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관들은 입제 첫날의 일정을 전부 마친 저녁 8시경 현관(獻官) 부인들이 제물로 갖고 온 것을 나누어 먹었다.

2) 둘째날

입제 둘째날은 아침 7시경부터 시작된다. 현관 등 제관들의 세면 후 식사와 오전·오후에 행하는 예행연습, 중식 후 제물구입과 야간에 이루어지는 제청 참관인의 대접으로 바쁜 하루가 준비되고 있다. 일정이 끝나고 취침 전인 밤 10시 30분경 제관(祭官)들에게 밤참으로 만두, 김밥 등이 제공되어 제관(祭官) 전부가 한 곳에 모이는 자리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1) 제물구입

제물 구입은 보목동에서 가장 가까운 시장을 이용하였다. 많은 비는 아니지만 비가 오는 날 오후 2시경에 제관인 전사관, 헌작 및 마을회 사무

장이 제청을 나서 서귀포 시내의 재래시장을 찾았다. 예전에는 제물을 담아 오는 그릇으로 구덕을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밀감농사를 많이 하는 곳인 보목동이라서인지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었다. 특이한 것은 컨테이너를 차량 뒤 트렁크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관이 비좁은 승용차 내의 의자에 앉고 컨테이너를 무릎에 얹어 가는 것이었다. 이는 천체에 사용하는 제물을 담은 용기를 함부로 다루지 않기 위해서 예전부터 내려오던 관습이라고 한다.

먼저 제미(祭米)용으로 사용할 쌀과 좁쌀, 누룩 등을 구입하고 나서 건어물을 취급하는 곳을 찾아 포(脯)와 울황(栗黃)으로 사용할 제물을 구입했다. 청저(靑菹), 근저(芹菹)의 제물을 만들기 위해 무와 미나리를 구입했다. 그리고 한지 종이와 먹을 구입하고 양초를 샀다. 녹포(鹿脯)와 녹해(鹿醢)용으로 사용할 소고기를 구입하고 깨끗하게 제주 고유의 청주를 만들어 파는 곳을 찾아 청주를 구입하고 곧바로 돌아왔다.

제기(祭器)는 스테인리스 제품을 마을에서 일괄 구입하여 보관해두었다가 제의에 이용하고 있었다. 제관이 입제하여 제청에 들 때부터 제기는 전사관이 아주머니들에게 주어 매일 닦으면서 이슬을 맞히고 하여 정성을 드린 다음 제의(祭儀)에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젓자리도 함께 구입하여 제기와 함께 관리하면서 정포제에 사용하고 있었다.

제물 봉하기를 할 때와 제물을 진설할 때를 대비하여 큰 사라 4개, 작은 사라 10개, 접시 3개, 술보시 1개, 찬 물사발 1개, 관수그릇 1개, 수건 1매, 고운 물 1통도 함께 준비하여 제물을 이동할 때 함께 이동시킨다. 특히 전사관은 이 때 백지 10장, 손전등 2개, 청주 1되, 붓과 먹도 확인하여 구입하거나 확보해 둔다.

(2) 마을민 제청 참관

마을 대표로 정포제를 지내기 위해 입제 근신하는 제관들을 위로하고 정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사품이나 회사금을 납부하기도 한다. 이 때 제관 알자는 손님을 청하여 제관에게 인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다음

제관들은 이들 참관인들의 대접에 소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식사 때가 되면 참가자들에게는 식사를 대접하고 식사를 하고 온 사람들에게는 차와 곡차 등을 준비하여 대접하였다.

제의가 잘 되고 잘못 됨을 마을민을 통해 들을 때 제청 내에서의 제관들의 행동과 마을민을 대접하는 제관, 특히 알자의 행동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게 되므로 제청을 참관하는 마을민 및 관련자의 대접에 특히 유의하고 있었다.

3) 셋째날

입제 삼일제 날은 새벽 6시에 시작하여 하루를 꼬박 보내는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다. 헌관들은 물론 전일 제청을 찾은 참관인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제관들까지 일찍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목욕제계를 시작되는 일정의 소화는 제관들의 진정한 몫이었기에 반드시 참석한다.

(1) 목욕제계(沐浴齋戒)

아침 6시경에 제관 전부가 일어나서 청년회원이 소유한 봉고 버스와 승용차를 이용하여 보목동에서 가장 가까운 목욕탕인 '현대사우나'에서 아침에 목욕제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관들의 목욕은 아침 일찍 시작됨으로 오랜 시각 많은 사람과 만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몸을 온탕(溫湯)과 냉탕(冷湯)에 담그면서 여유롭게 하는 사우나와는 달리 30분 정도에 모든 것을 끝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돌아와서 조반(朝飯) 식사를 하고 포제 일정을 치렀다.

(2) 희생 준비

전사관이 중심이 되어 양돈장에서 확보하여 사용한다. 검은 색 털을 가진 수놈으로 상처나지 않은 건실한 것으로 택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의에

사용하는 것을 '정봉'이라고 하고, 제관 및 마을 관계자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분육용으로 별도로 준비하는 것을 '가봉'이라 한다.

(3) 축(祝)·지방(紙榜) 작성

대축이 작성한다. 지방(紙榜)은 정포제의 대상 신위(神位)의 이름인 '포신지령(醜神之靈)'이라고 쓴다. 지방은 장방형이다. 제단에 설치할 때는 굵지 않은 60cm 정도 크기의 대나무의 끝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에 꽃아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 다음, 시멘트로 만든 지방틀에 붙들어 묶어 고정함으로써 설치하고 제의를 봉행하게 된다.

축문 내용은 제의 봉행의 목적인 기구(祈求) 사항을 하나하나 적기 마련이다. 한지에 먹으로 작성한 축문에는 전년과는 달리 올해에는 선거철로 제주특별자치도 초대 도지사과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원을 뽑는 동시 지방선거일이 5월 31일이며, 농협조합장, 감협조합장, 수협조합장 등을 선출하는 선거일이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 때 보목동의 마을민이 출마하는 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대축과 동회장은 물론 제관들이 협의하고 초헌관 이상 헌관들과 숙의(熟議)한 끝에 출마한 마을민의 당선을 위해 '선거출마(選舉出馬) 후보당선(候補當選)'이라는 내용이 축문에 삽입되었다.

(4) 제물 봉하기

전사관이 중심이 되어 제물을 확인하는 순서이다. 강석민에 의하면 전 날 밤 제관 대축(大祝)이 작성한 봉(封)인용 글씨를 제물을 담은 비닐봉지에 붙이거나 제물 위에 얹어 확인한 제물과 그렇지 않은 제물을 구분하는 제차(祭次)이면서, 제미(祭米)부터 희생에 이르기까지 제물 전부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다.

<표5> 물건기

구분	犧牲	眞墨	黃筆	燭	香	幣帛	형염	栗黃	芹苴	靑苴
	일두	일정	일병	이병	일봉	삼필	일승			
대체				양초	생꼬 가지	청홍백	소금	밥, 대 추, 꼬 감, 꿀, 사과,	무	미나리
수량	이두	약간	약간	일봉	약간	三尺	약간	오倂	일倂	약간
비고	정봉, 가봉							비자 약간		

구분	魚醢	魚脯	鹿醢	鹿脯	曲子	酒米	稷米	黍米	梁米	稻米
									"	삼升
대체	비근도 리	건명태 오징어	쇠고기	쇠고기	누룩, 꿀	호린조	피쌀	모인조	참쌀	쌀
수량	삼두	각삼두		1kg	약간					일升
비고					꿀감주 용					

물목을 적은 물건기(物件記)는 가로 44.5cm, 세로 28cm 정도 크기의 장방형으로 한지에 먹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것은 제관 집례가 차례대로 읽어나가면 전사관은 준비한 물목에서 부르는 순서의 제물을 차례대로 내어주면 제관 알자는 상에 받아 향을 피운 제관앞 자리로 나가 확인시킨 뒤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되는 것이다. 제물 봉하기를 마친 물목(物目)을 보관하는 곳은 전사관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는 공간으로 출입금지의 표지를 붙여 출입을 삼갈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換氣)시키기도 하였다.

(5) 마지막 예행연습

한복과 두루마기를 갖추어 입고 밤 9시 30분경이 되면 제관들은 청의(靑衣)인 도복(道服)을 갖추어 입느라고 분주하다. 행경을 치고 유건을 갖추었으며 청의를 입는다. 옷고름을 가지런히 정리한 다음 술띠를 두르면 청의 착용이 끝나게 되는 것이다. 제관들은 서로의 옷매무새를 돌아보고

수정한 다음 먼저 정리가 되면 제청 내에 조용히 앉아 다하지 못한 제관들이 다 착용할 때까지 기다린다. 제관 모두가 도복을 갖추어 입고 나서 제관들은 3층으로 올라가 공연 예술의 리허설처럼 마지막 예행연습을 치른다. 제물만 진설하지 않을 뿐 마음가짐에서부터 예행연습시의 모든 행동이 절도 있고 신중하기 이를 데가 없다.

(6) 제단으로 이동

예행연습을 마치고 내려와 밤 10시 30분경이 되면 제물을 이동할 차량에 싣기 시작한다. 전사관(典祀官)은 제관들과 함께 준비해 둔 제물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차량에 싣게 된다. 우선 희생(犧牲)인 전마리의 돼지를 차량의 뒷부분에 싣는다. 그리고 나머지 자리에 다른 제물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나누어 담은 컨테이너를 싣게 된다. 이 때 제단에 깔 카펫 및 젓자리, 전기설치용 리드선과 전구, 약간의 대기 시간동안 제관들에게 제공할 커피나 녹차를 준비를 위해 이동용 가스버너, 물, 주전자, 종이컵, 커피숟가락, 현미녹차 등을 별도로 준비하여 컨테이너에 담아 함께 이동시켜야만 한다. 그리고 그 제물의 앞자리에 제관인 알자와 봉향, 봉로가 타게 된다.

제물을 실은 차가 제일 먼저 출발한다. 차량이 출발하면 알자(謁者)는 제관들 중앙에 위치하여 준비한 댓가지를 흔들며 부정한 것이 범접(犯接)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리고 봉향(奉香)과 봉로(奉爐)는 향불을 피워 심한 향의 냄새와 연기가 나도록 하여 나쁜 것의 범접(犯接)을 막게 되는 것이다. 그 뒤를 현관 이하 제관을 태운 차량이 뒤따른다. 제단까지는 굽은 길을 고려하더라도 5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이다.

제단에 도착하면 제의 봉행에 앞서 이동시켜온 제물의 진설부터 이루어져야 했다. 제관과 함께 제단으로 이동한 제관들을 지체하지 않고 제물 진설에 임한다. 물론 이 때 현관(獻官)들이 삼잔(三盞)을 올리는 위치의 신위전(神位前)과 배위(拜位)에 카펫을 깔고 젓자리를 설치하며, 관세위(盥洗位) 자리에는 청수를 담은 대야와 수건을 준비해 둔다. 또 현관들이 잔을 올릴 때 전작(奠爵)과 헌작(獻爵)의 제관들이 술을 따르는 곳인 준소

(樽所)도 확보된다.

이렇게 제물 진설을 마치면 30분 정도 여유 시간이 생긴다. 이 시간 제관들은 바쁜 숨을 가다듬고 도복의 형태를 고치는 등 잠시 여유를 보인다. 이 시간동안 청년회에서는 이동용 야외 가스버너를 이용해 물을 끓이고 종이컵을 이용하여 커피와 녹차를 준비하게 된다. 잠시지만 한없이 여유로운 고요한 밤이다. 특히 올해에는 보름달이 하늘 높이 올라 있는 가득한 어둠 사이로 반짝이는 별들이 제관들과 함께 하는 고요한 밤이었다.

<표6> 제물 진설도

		神位						
		稻	梁	黍	稷			
		清水						
형염		犧牲						
		폐비(幣篚)						
魚醢	鹿醢				魚脯	鹿脯		
靑菹	芹菹	俎	乾柿	栗黃				
祝板 폐비								
		燭	燭					
		香爐					爵4. 樽	

제관(祭官)과 청년회 참례자들이 제단(祭壇)으로 모두 이동하고 나면 제청(祭廳)에는 제관의 식사와 제물 장만을 담당하는 제관인 취반(炊飯) 3인이 마을의 여성을 대표하여 마을내 본향당의 당신(堂神)에게 준비한 제물을 구덕에 담아 찾아가서 인사한다고 한다.

4) 넷째날

도복을 갖추어 입고 제단에 대기하는 제관들이 하루의 시작 시각인 자시(子時)에서부터 제의봉행, 음복과 결산보고, 분육의 과정을 소화하면서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분육이 끝나고 돌아가는 시각이 새벽녘에 모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오래지 않음을 알 수 있게 한다.

(1) 제의 봉행

원래 제단은 ‘제지기오름’에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오름이 높아 제물을 옮겨야 하는 일이 쉽지 않게 되어 지금의 포제동산으로 옮겼다고 한다.

제의(祭儀)는 청신(請神), 오신(娛神), 송신(送神)의 단계를 유교식으로 전개하면서 치르게 되는 것은 당곳의 형식 등 다른 제의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제의에 들어가기 전 자시(子時)에 가까운 자정에 다다르면 제의 봉행 시간이 다다랐음을 집례(集禮)가 제관(祭官) 및 참례자(參禮者)들에게 알리면, 알자(謁者)의 안내를 받아 초헌관이 제단을 점검하기 위해 둘러본다. 이 때 알자(謁者)는 진설한 제단의 향상(香床)에서 향로(香爐)를 들고 와 향을 많이 피워 흰 연기가 많이 나도록 하고 초헌관의 앞쪽에 서서 제단의 담 밖으로 돌아간다.

정포제의 진행은 <정포제(正醕祭)홀기(笏記)>를 집례가 부르면서 진행된다. 홀기문을 펼치면 <포제의(醕祭儀)> 라고 큰 글씨로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내용은 이보다 조금 작은 글씨로 작성되어 있다.

醕祭儀

集禮贊者謁者皆無通謁四

拜盥洗各就位 謁者引獻官/以下俱就門外位. 謁者引祝及

諸執事入就壇南拜位四拜鞠躬

躬拜 興詣盥洗位 盥手各就位

謁者引獻官入就位 謁者進初/獻官之左 白有司謹具請行事,

四拜禮 在位者及獻官皆四拜 鞠躬拜 興平身

① 전폐례(奠幣禮)

行奠幣禮 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 北向立 搯笏 盥手 執笏 引詣神位前
北向跪 搯笏 三上香 獻幣 執笏 俯伏興平身 引降復位

② 작헌례(爵獻禮)

㉞ 초헌례(初獻禮)<고축(告祝)포함>

行爵獻禮 謁者引初獻官 詣/樽所西向立 酌酒, 引詣神位前
北向跪 搯笏 獻酌. 執事者 俯伏 興 小退跪/ 祝以進神位之右東向跪
獻官以下諸執事俯伏 讀祝. 興 平身 引降復位

㉟ 아헌례(亞獻禮)

行亞獻官之禮 謁者引亞獻官 詣盥洗位 北向立 搯笏 盥手 執笏/ 詣樽所
西向立. 酌酒. 引詣神位

前 北向跪 搯笏 獻爵. 執笏 俯伏 興 平身. 引降復位

㊱ 종헌례(終獻禮)

行亞獻官之禮

謁者引亞獻官 詣盥洗位 北向立/ 搯笏 盥手 執笏. 引詣樽所 西向立. 酌
酒. 引詣神位前 北向跪 搯笏 獻爵/ 執笏 俯伏 興 平身. 引降復位 四拜
獻官皆四拜 鞠躬拜 興平身/

③ 음복례(飲福禮)

飲福受胙 執事者 持俎進坎神位

前胙肉 以爵酌 飲酒 謁者引初獻/官 陞詣神位前 飲福位 西向跪
搯笏, 執事者 西向立 以爵授獻官/ 獻官受爵 飲卒酌 以爵授執事者
執事者 受○爵 執事者 以俎授獻官/ 獻官受俎 飲胙肉 以俎授執事
者 執事者受俎降自東階出門/ 執笏 俯伏 興 平身 引降復位

④ 철변두(輟籩豆)

徹

籩豆 祝以進徹籩豆 四拜 在位/ 者及獻官皆四拜 鞠躬拜 興
平身

⑤ 望燎禮

望燎位 祝以入篚取 祝板/ 及幣毛血於 降自西階置於坎

謁者引初獻官 詣望燎位 西向/ 立 焚幣 盖燎.

謁者進獻官

之左 白禮畢 逐引獻官出門/ 謁者 引祝及諸執事 俱就壇南

拜位 四拜 祝以下 皆四拜 鞠躬拜 興平身 諸執事以

此出門

⑥ 참례자 참배

제의 봉행을 마치면 정포제(正醮祭)에 참관한 마을민과 제물 운반, 제관들을 위해 함께 왔던 청년회원들이 배위(拜位)로 나와 사배(四拜)를 올린다.

(2) 철상 및 복귀

철상(撤床)은 참례한 청년회원과 하제관이 담당하고 있다.

제청 복귀는 제단으로 이동해 올 때와는 반대의 순으로 가장 멀리 세워진 차량부터 복귀하는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포제동산이 갖는 지형적 특징상 차량 1대만이 간신히 운행할 수 있는 입구 도로의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제청에 복귀하여서 제관들은 대과없이 무사히 제의 봉행이 이루어졌음에 서로의 노고에 감사하는 덕담(德談)을 서로에게 나누면서 입실한다. 그리고 마을회에서 준비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도복을 우선 벗어 한 곳에 모은다. 행경과 도복, 술띠, 유건을 종류별로 모아두면 마을회의 사무장과 마을회장이 거두어 세탁소에 맡김으로 다음 사용에 대비하고 있다.

(3) 음복(飲福)과 결산보고(決算報告)

도복은 물론 한복과 두루마기를 벗어 정리한 후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제관들은 서둘러 앉으면서 식당으로 모인다. 청년회원과 하제관들이 중심이 되어 입제 기간 내도록 제관들의 식사는 물론 제청 참례자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해 온 3명의 취반(炊飯)이 준비한 음식과 반찬을 식탁으로 옮

겨 차린다.

우선 서로 이상하게도 제의 봉행 시간이 되어 더욱 환하게 밝혀주었던 달과 심하게 불지 않으면서 잔잔하게 참아주었던 바람, 출지 않았던 기후 등에 대해 감사하면서 자리하게 되는데, 우선 동회장의 감사인사부터 듣게 된다. 그리고 나서 제의 봉행에 책임을 졌던 초헌관의 감사말을 청취한 뒤 건배를 제의받아 서로의 노고에 보답하는 축배를 나눈다. 그러는 사이 알자(謁者)는 '정포제금전출납부'를 정리한다. 그리고 그 정리한 결산 내역을 제관들에게 보고한다.

<표7> 정포제금전출납부 정리표

구분	수입	지출	추가지출	잔액	초헌관	마을회장
丙戌年(2006)					현원후	강진국
乙卯年(2005)	5,950,000	3,852,000		2,098,000	한석진	강진국
甲辰年(2004)	5,890,000	3,296,000		2,594,000	강정근	이권식
癸巳年(2003)	3,450,000			856,500	이시준	이권식
壬午年(2002)	3,733,000			1,374,030	강준구	
辛未年(2001)	3,280,000	2,272,400		1,007,600	양원종	이권식
庚申年(2000)	3,288,000	1,712,000		812,000	강대연	강희성
己酉年(1999)	2,820,000	1,951,000		869,000	강민제	한평섭
戊戌年(1998)	2,998,000	2,221,500		776,500	한용섭	한평섭
정해1997	2,943,000	2,015,300	100,000	827,700	강창현	마을회
병자1996	2,845,000	1,729,000		1,116,000	한재유	마을회
을축1995	2,775,000	1,510,000	700,000	565,000	현종구	
갑인1994	2,765,000	1,504,000		1,260,000	이춘옥	
계묘1993	1,700,000	1,045,000		655,000	한의범	
임진1992	736,000	418,800		317,200	현종구	
신사1991	920,000	828,300		91,700	양수명	
경오1990	816,000	647,200		118,800	이용구	
기미1989	551,000	591,700		-	한홍섭	
무신1988	450,000	279,200		170,800	한정현	
丁卯年(1987)	444,000	353,700		72,300	한홍섭	

1987년의 경우 170kg의 희생(犧牲) 구입비 272,000원은 4개 통장이 전적으로 부담하여 구입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4) 분육(分肉)

전사관이 청년회의 도움을 받아 분육을 담당한다. 선정되어 제의 봉행에 참여한 제관들은 물론 마을의 자생단체 등의 몫 등 희생(犧牲)으로 올린 정봉 돼지는 물론 분육용으로 확보한 가봉 돼지 등 2마리를 24개로 균분하여 나누어야 한다.

5. 보목동 정포제의 고유성

화산섬 제주에서의 삶의 영위는 매 순간 순간이 생의 한계와의 직면이었다. 질병에 대한 공포가 그러하였고, 농경·어로 등 생산량의 확보 또한 불확실한 미래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와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예부터 제주인들은 회구하는 바 다양한 초월적 존재로서 신들을 탄생시켰으며, 보목동 정포제 또한 이러한 현상중의 하나임을 앞에서 살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포제 혹은 별제, 이사제 등으로 불리는 것과는 달리, 보목동에서는 정월에 거행하는 포제라는 의미로 ‘正醮祭(정포제)’라 命名(명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祭日(제일)의 선정에서 우선 고려하는 것이 마을내 여성들 중심의 무속식 당굿의 집행일인 本郷堂(본향당)의 정월 12일 이후에 오는 丁日(정일)을 擇日(택일)하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올 해에도 中丁日(중정일)에 祭儀(제의)가 집행하였다. 이는 마을 本郷堂(본향당)의 堂神(당신)이 正醮祭(정포제)의 주요 제물인 돼지고기를 부정한 음식으로 관념하기 때문인데, 같은 이유로 온평리에서는 부정한 음식 돼지고기를 피해 ‘소’를 犧牲(희생)으로 사용하고 있다.

셋째, 입제 기간 중 하루 3회 이상의 예행연습을 통해 祭官(제관)들의 직분과 의무를 숙달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마을민의 대표로서 마을민의

안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다.

넷째, 정봉과 가봉이라는 명칭이 있듯 희생용 제물인 돼지고기를 충분히 확보하여 제관은 물론 마을민을 위해 노력하는 24개 기관 단체에게 분육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청년들의 참여가 적극적이며 항상 친절한 모습으로 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 핵심어 : 정포제, 본향당신, 중정일, 예행연습, 정봉·가봉, 분육

<참고문헌>

- 金東燮, 「兎山堂 본풀이 연구」, 제주대학교대학원석사논문, 1989.
- 김동섭, 「서귀포 법환동마을제 연구」, 『영주어문』(7), 영주어문학회, 2004.
- 文武秉, 「濟州道堂信仰研究」, 濟州大學校大學院博士學位論文, 1993.
- 文武秉 외, 『제주민속유적』, 제주도, 1997.
- 이두현 외, 『부락제당』(민속자료조사보고서29), 문화재관리국, 1969.
- 이완중, 「제주도 마을제에 대한 고찰」, 제주대학교대학원석사논문, 1995.
- 이재필 외, 『산간신앙Ⅱ』(경북, 경남),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 이재필 외, 『산간신앙Ⅲ』(전북, 전남, 제주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 제주대학교 국문학과 외, 『제주도부락지』(1~4),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90.
- 제주대학교 박물관, 『제주시의 향토민속』, 제주시, 1992.
- 秦聖麒, 「醮祭堂과 部落祭」, 『濟州島巫俗論考』, 濟州民俗研究所, 1993.
- 천진기 외, 『산간신앙-강원, 경기, 충북, 충남』, 국립문화재연구소, 1993.
- 최승순, 「동계축문의 형식고」, 『한국민속학』(9), 민속학회, 1976.
- 표인주, 「전남촌제의 축문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89.
- 玄容駿, 『濟州島巫俗資料事典』, 신구문화사, 1980.
- 玄容駿 외,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編), 文化財管理局, 1974.

<Abstract>

Study on the folklore products made of plants

Kim Dong-seop

Jeju is a volcanic island. Lives in a island are very hard. So many ritual ceremonies are held by villagers from long time ago. This paper is a study of Bomok-dong ritual ceremony.

1. Bomok-dong ritual are named 'jeongpoje'. It's mean at in a January.

2. But It's day is a later day a shaman's ceremony day. It's day is 12th January every year.

3. Villager elect 12 ritual substitutes. They exercise many times in a prepare-sacrificial place.

4. Villager bought two pigs. one is a ritual, the other is a distribution. After ceremony, they're distributed to cooperatier.

5. The yuonng men of village are positive, and very kind.

I think this ritual is held by villager long time.

- Key Words: confucianial ritual, shanianial ritual, ceremony, prepare exercise, distribute